

제4회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1. 일 시 : 2023년 3월 7일(화요일) 13:00 ~ 17:00
2. 장 소 : 인하대학교 5남140호
3. 주 최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상호문화실천연구팀),  
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4. 후 원 : 한국연구재단(NRF), 인하대학교

인사말

13:00-13:10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

기조 발표

13:10-15:00	주제: 마종기, 이주와 귀향의 시학 최현식 교수 (인하대학교)
	주제: 일본사회에서의 한국 음식문화 김태호 교수 (일본 코난대학교)
	질의응답

사례 발표

15:10-16:30	주제: 우즈베키스탄계 이주민의 상호문화경험 피루자 박사 (다문화융합연구소)
	주제: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가족문화 이춘양 박사 (시흥시청)
	질의응답
16:30~	마무리: 김영순 교수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제4회 일반공동연구과제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1. 일 시 : 2023년 3월 7일(화요일) 13:00 ~ 16:00
2. 장 소 : 인하대학교 5호관 남140호(5S140)
3. 주 최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일반공동연구팀), 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4. 후 원 : 한국연구재단(NRF), 인하대학교

워크숍 세부 일정

### 인사말

13:00-13:10	인사말: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

### 기조 발표

13:10-14:30	주제: 마종기, 이주와 귀향의 시학 최현식 교수(인하대학교)
	주제: 일본사회에서의 한국 음식문화 김태호 교수(일본 코난대학교)
	질의응답
14:30~14:45	휴식

### 사례 발표

14:45-15:55	주제: 우즈베키스탄계 이주민의 상호문화경험 피루자 박사(다문화융합연구소)
	주제: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가족문화 이춘양 박사(시흥시청)
	질의응답
15:55~16:00	폐회사: 김영순 교수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목 차

특강	기초강연	
	기초 1 최현식   마종기, 이주와 귀향의 시학	1
	기초 2 김태호   일본사회에서의 한국 음식문화	7
사례 발표	사례 발표	
	사례 01 피루자   우즈베키스탄계 이주민의 상호문화경험	27
	사례 02 이춘양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가족문화	28

---

제4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01  
마종기, 이주와 귀향의 시학  
최현식 | 인하대학교

02  
일본사회에서의 한국 음식문화  
김태호 | 일본 코난대학교

마중기, 이주(移住)와 귀향(歸鄉)의 시학  
— 근작시(2021)를 중심으로

최현식(인하대 국어교육과)

어느새 산수(傘壽)를 훌쩍 넘긴 시인 마중기는 2021년 벽두 자신의 온 시와 삶을 두고 “아무도 보지 않은 광대놀이 한 평생”(「겨울의 응답」\*)이라고 일렀다. 남의 시선과 평판을 끌어내야 겨우 제 삶이 가능해지는 ‘광대’이건만 ‘회피된 놀이꾼’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처연한 쓸쓸함이 무척 애통해지는 장면이다. 한국 언어미술의 빛나는 성과 가운데 하나로 세평하여 누구 하나 뭐랄 것 없는 현실인데, 시인은 왜 스스로의 시—삶을 보잘 것 없는 잔재미의 “광대놀이” 썸으로 일부러 낮추는 걸까. 그 진실성을 엿본다는 뜻에서 “광대놀이”를 시학상의 개념과 관점을 해석의 렌즈에 비춰보면 어떨까.

먼저 ‘회피된 광대’는 스스로 잃음으로써 오히려 잃어진 것들을 다시 되찾고 되살리는 회감(回感)의 예지자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어느 시절 어떤 곳을 막론하고 ‘광대’는 자신을 숨겨 타자와 세계를 드러내고 자아를 숙성시켜가는 ‘탈’의 존재로 제 기예를, 아니 삶을 바쳤다. 그러니까 남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한 점 버림 없이 자기화함으로써 감춰진 비의를 탐색하고 더 나은 세계를 구현하는 진선미 충동의 페르소나(persona)였을 때 ‘광대’는 비로소 간신히 사람 대접받는 예인(藝人)으로 거듭났다.

그런 점에서 ‘회피된 광대’의 가면은 세속적 권력과 욕망에 들뜬 허풍선이, 다시 말해 ‘광대’를 하찮고 비루한 자로만 내모는 알라존(Alazon)에 맞서 회심의 판단력과 냉철한 침묵을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에이런(Eiron)의 감춰진 얼굴과 상통한다. 이곳에서 “한때 세상을 빛나게 하던 중독증”(「시인의 방」)을 기억하며 “쌍인 눈으로 발자국 하나도 식별할 수 없는 천지”(「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들리는 노래”(「나비의 꿈」)를 찾아 헤매는 ‘광대=에이런’의 진정한 유희, 곧 미학적 충동이 찾아진달까. 장르를 불문하고 광대이자 에이런인 예인들을 ‘실향함으로써 귀향하는’ 역설적 존재로 규정할 수 있는 까닭도 이곳에서 찾아진다.

마중기의 새 시에서 에이런의 민낯을 감춘 ‘회피된 광대’의 목소리를 찾아본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할까. 비평가의 생각으로는 강요된 이산자의 트라우마가 울울한 “사는 게 늘 춥고 흐리고 무서웠지”(「겨울의 응답」\*)라는 대목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거칠게 말해 국민과 시인으로서 마중기의 삶은 민족의 주권과 시민의 자유, 그리고 시의 자율성을 뜨겁고 아프게 외친 1965년 7월의 ‘한일협정반대선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다.

등단 시절 시인의 가능성은 무엇보다 “순(純)된 인간성과 밝은 예지와 농밀한 지성”의 “삼위일체적 융화와 통일과 승화”를 높이 산 박두진(1959)에서 뚜렷하다. 한편 한국시를 이끌어갈 젊은 ‘언어미술’의 출중한 역량은 “사랑, 세상, 저녁, 상심, 눈물”과 같은 “자기 체질 위에 풍자의 현대성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김수영의 시평(1966)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문인서명에 대한 군사정권의 억압과 처벌로 강요된 국외추방, 곧 고향을 빼앗긴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은 시인의 내면과 언어에 혹독하고 절망스런 소외의식을 깊이 아로새기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어디서건 어차피 유량이고, 이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해뎀과 떠돌이”(대담 「시의 진실과 진실한 시」)이 존재 전반을 지배한다는 비극적인 숙명의식이 한층 배가된다. 이 불행한 의식은 “이해 없던 방향”과 “작은 화폭마저 채울 수 없는 부끄러움”(「자화상」)을 일상의 정서와 시의 분위기로 종종 물들여 갔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감정의 파고였다. 그 정점에 위치한

비극적 파토스가 “돌아갈 길이 더 멀고 험한 것”(「당신의 하느님」)이라는 통절한 불귀의식이었다.

시인은 그러나 이 “평생의 아픔”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슬픔”(「당신의 하느님」)으로 역전, 승화시킬 줄 알았다. 마종기를 지혜로운 침묵의 방랑자이자 자기 관찰에 매섭고 성실한 이산자로 우리의 현대시사에 올릴 수 있는 결정적 까닭이 여기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중반 정지용의 시어로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주장은 적실한 도움이 된다. 지용은 아이들의 느릿하지만 천진스런 ‘놀이(訥魚)’를 세상에 발화되는 첫 인식이자 대화라는 점에서 시어가 따라 마땅한 본원적 언어로 내세웠다.

마종기의 깊고 묵직한 음유(吟遊)는 이런 조건에 상당히 부합할 성싶는데, 이를테면 다음의 시를 보라. “옆에 사는 새가 놀라지 않게 / 몸짓도 없애고 소리도 죽이고, / 떠다니는 영혼이 알은 체하면 그 추운 마음도 쉬어가게 해야지”(「떠다니는 노래」). 이 구절은 자기의 절제와 타자의 지향으로 빛나는 동시에 충만하다. 시인의 내적 성숙은 시적 기량에 대한 오랜 단련의 결과로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예컨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헛다리를 짚으면서도, 어느덧 삼베옷을 입은 옥저 사람이 되었습니다”(「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대목은 어떤가. 스스로를 가장 낮은 변두리 삶에 내던짐으로써 그토록 갈구하던 (내면의) 자유와 해방의 문턱에 가닿는 탈식민의 윤리와 쾌미가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마종기 시에서 이렇듯 빛나는 자기 관찰과 주변적 타자로의 변신은 다음과 같은 시적 방정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면, 곧 헛것으로 민낯, 곧 진짜를 찾아가는, 달리 말해 ‘타자의 발견’을 통해 진정한 자아와 세계로 귀환하는 ‘광대=에이런’의 성숙한 내면이 주조해낸 언어미술이 있어 가능했다. 아이들은 가장 친근한 모어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무구한 ‘놀이’의 구현자로 산다. 모어 중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아찔한 ‘놀이’로 길러진 시인은 그러나 추방의 삶을 살면서 그 세계의 익숙한 문법을 사랑하되 자꾸 무덤덤해지는 시선의 관습을 뒤집는 의식의 모험에 남다른 고자 했다.

이 지점에 마종기의 이산시(離散詩)를 “구겨진 내 그림자를 꺼내어 / 잊어버린 것발같이 흔들어”(「두 개의 일상」)보는 자아와의 느슨한 악수의 노래 정도로 약화시킬 수 없는 까닭이 숨어 있다. 시인은 ‘구겨진 그림자를 하릴없이 위안하는 대신 “더 이상 소리낼 수도 불을 지를 수도 없어서 자유로운, 자유로워서 아름다울 수 없는 침전의 생활”(「중산층 가정」)에 더욱 집중했다. 이 깊은 심연에서 이산자로서의 자의식과 언어를 툫아내면서 바라는 바의 완미한 리듬과 풍요로운 이미지를 세심하게 조율해 갔다.

마종기 시를 대표하는 ‘진정한 장소’를 들라면, 많은 독자들은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를 가리킬지도 모른다. 그들 대다수는 이 감춰진 나라에서 추방된 이산자의 고국에 대한 가없는 그리움과 뜨거움을 읽어낼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에스닉(ethnic)의 정서와 문화에 기반한 민족혼만으로 ‘더 나은 내일’로 농밀해야 할 최후 / 최고의 상상의 공동체가 현실화될 수 없으며 또한 그래서 안 된다. 오히려 그곳은 예지와 자유로 충만한 ‘탈식민의 놀이’로 건축됨으로써 모국과 이국 같은 특정한 공간을 뛰어넘고 가로지르는 인간 공동의 본원적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야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는 그 어떤 “탈출과 망명의 비밀”이 필요치 않은 “세상에서 가장 심심한 작은 섬”(「섬」)으로 저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으면, 혹시  
파타고니아의 하늘은 하루쯤 환한 몸을 열어 줄까?  
짐승 타는 냄새로 추운 벌판은 침묵보다 살벌해지고  
올려다볼 별 하나 없어 아픈 상처만 덧나고 있다.  
남미의 남쪽 변경에서 만난 양들은 계속 죽기만 해서  
나는 아직도 숨겨온 내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파타고니아의 양」 부분

2009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시인이 가려 뽑은 ‘자선시’를 대표할만한 명편으로 손색 없다. 거센 바람이 연중 끊이지 않는 저온의 빙하시대 ‘파타고니아’는 평균 신장 180cm에 달하던 선주민 떼우엘체족을 이르던 ‘파타곤(paragón)’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하지만 기껏 활과 칼로 공격과 방어에 의존했던 그들은 천연 경험 밖의 ‘총·균·쇠’로 무장한 160cm의 단신 스페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식민화된 끝에 절멸의 비극을 면치 못했다. 그 추운 별판에서 “계속 죽기만” 했고 지금도 그런 처지인 “남쪽 변경”에서 만난 ‘양’들은 그러므로 자연의 존재만일 수 없다. 그것들은 낡은 인종지에 그 흔적만 희미하게 기록되는 비극적 운명에 처한 피식민의 ‘파타곤’이다. 동시에 어딘가 사랑의 존재를 믿으며 벗어나기만 하는 “아픈 상처”를 평생 다독여온 끝에 이제야 겨우 “아직도 숨겨온 내 이야기”에 대해 입술을 떼려는 이산자인 ‘나’이기도 하다.

거친 죽음의 울동에 나포된 존재들의 쓰라린 운명과 고독은 저 변경의 추운 별판을 가로질러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바람의 말」)이 어떤 것일지를 투명하게 예감케 한다. “지적의 자로만 재고 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 (「바람의 말」), 그 중에서도 “세상은 어차피 이별의 연속”,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고향”, “인간은 알고 보면 모두 실향민이라는 말”(「겨울의 응답」\*) 들에 선명한 상실과 이별의 실존적 한계가 그것이다. 사망이 가로막힌 타나토스의 유형지에 던져진 현실은, 하이데거의 말을 빌린다면, 본원적 생과 향토를 절실하게 “의욕하는 존재로서의 모험과 함께 가”려는 ‘더욱 모험하는’ 의식을 여지없이 좌절시키기 마련이다.

이 때문이라도 시인이 ‘광대=에이런’의 시선을 통해 자아의 내면을 “파타고니아의 양”에 비추는, 다시 말해 겹겹의 타자로 객관화하는 의식의 모험은 거듭 파헤쳐보아 마땅한 생명충동이자 언어적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시인은 그러나 주관적 욕망의 손쉬운 성취를 위해 “온전하지 못한 것 속에서 온전한 것을 노래”하는 일에 발 빠른 알라존의 위력에 함부로 기대지 않는다. 오히려 온몸으로 “온전함의 흔적을 찾도록”하는 “부전(不全)한 것으로서의 부전(不全)”(하이데거)을 다시 돌아보고 그것의 가치를 새로 찾아내는 성찰의 시간에 깊이 몸 담근다. 이 점, 이전에도 자선시 목록에 빠지지 않았을, 그런 만큼 시인의 삶과 내면, 시적 사유와 이념의 기원과 변화가 가장 투명하게 담긴 초기의 「정신과 병동」과 중기의 「섬」을 다시 불러낸 까닭일 것이다.

「정신과 병동」과 「섬」은 마중기의 시인됨을 드러내는 진솔한 ‘자기고백’ 못지않게 이질적 타자의 상호 발견과 교섭의 수행과 깊은 관련된다. 그 의미와 가치가 각별하다. 「섬」은 주체자로서 질병과 죽음의 울무에 걸려든 최고의 약자에 대한 관찰의 언어이다. 어떤 연민을 발현시킨다 해도 의사-바라봄과 환자-바라보임의 기울어진 권력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문인선언 후 밀어닥친 징벌의 시간과 절망의 내면을 아프게 회상하는 「섬」에는 힘센 폭력적 타자에 의해 가해지는 죽음의 공포와 상실의 불안이 아찔하게 흐르고 있다. 그 어떤 희망의 주술을 달 짝인 다 해도 절대권력-바라봄과 시인-바라보임의 억압적 체계가 달라질 리 없는 현장이다.

시인이 미국에 건너간 1970년대 세계 현실은 극단적인 체제와 이념의 분열, 인종과 계급과 문화의 끔찍한 대립이 창궐하는 앞뒤 짝 막힌 ‘안 보이는 나라’에 가까웠다. 이토록 우울한 암실 아래서 이산자의 신분으로 살아내야 했던 시인·의사로서의 삶은 그 경험의 양상은 여러모로 변주되었으되 「정신과 병동」 및 「섬」에서 경험된 서로 상반된 ‘바라봄’과 ‘바라보임’의 관계를 예외 없이 반복케 했다. 이에 따른 생의 불안이 -극을 향할 경우는 진저리나는 “짐승 타는 냄새”(「파타고니아의 양」) 속으로, 그에 맞선 생명충동이 +극을 향할 경우는 어딘가 존재하는 사랑을 향해 “숨한 번만큼 더 모험적인 자”(하이데거)로 시인을 밀고 가기에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시끄러운 물새도 없고 꽃도 피지 않는 섬” “이기고 지는 것이 없는 섬, 영웅이 없는 그 섬”(「섬」)과 같은 텅 비어 무색무취한 장소를 바라마지 않는 시인의 영혼과 언어는 +극과 -극 동시 작용의 산물이랄 수 있다.

하지만 +극과 -극 어느 한편으로의 지나친 편향은 아방의 완전과 타방의 불완전만을 호출하고 고집하는 부정적 대립을 자꾸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한편으로는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의 상황을 추적하고 건축하는 더욱 모험적인 시인으로서의 발전과 성숙

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시인이 좋아하는 미국 의사시인 윌리엄 칼로그 윌리엄스의 신예시인 긴즈버그에 대한 따스한 추천사를 빌려 제시하는 시적 방향등의 면면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공유되었으면 하는 시적 정의(定義 / 正義)에 해당된다.

예컨대 윌리엄스는 긴즈버그 시의 가치와 가능성을 “생이 단지 비천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의 삶은 고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문학 뒤에 사는 문학」\*)는 점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감정”에 담긴 진정한 본질을 ‘지혜’, ‘용기’, ‘믿음’, ‘예술’로 같음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제안은 어떨까. 윌리엄스와 마종기 선후배 의사시인의 국경과 혈통, 피부색과 문화적 토양을 초월한 연대의식 및 공동의 서정을 찾아서 기려보자는 작업 말이다. 예의 네 가지 덕목을 두 시인이 나눌 수 있는 대목을 마종기의 새 시에서 찾아본다면, 시와 의학으로 “사람의 신음 사이로 열심히 배어드는 일, / 그 어두움 안으로 스며드는 일”, “스며들다가 내가 젖어버린 먼 길”(「신설동 밤길」\*)이 가장 함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인은 특히 약자이자 소수자인 타자들의 어둠으로 스며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그 자신 미국이라는 이주국가 특유의 모순과 폭력에 아찔하게 노출되던 아연한 순간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아래의 시와 같은 숨 막힐 듯한 신중함은 일용할 양식이 아닐 수 없었다. 후기시에 이를수록 “그 겸손하고 작은 물 내게 묻어와 / 떠돌던 날의 더운 몸을 씻어”(「온유(溫柔)에 대하여」)주는 온유의 성정이 네 덕목을 잇고 감싸는 시와 존재의 윤리학으로 깊이 뿌리내렸던 것도 이와 관련 깊다.

그래,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말하지만  
사는 게 늘 춥고 흐리고 무서웠지.  
젊었을 때부터 신이 나서 장난하듯  
하루라도 다 잊고 버틸 수가 없었어.  
내가 살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었고  
내가 맡은 역은 칼과 피와 살과 약,  
사람을 살리려 애쓰다 죽이기도 하는  
수고했다 말 듣기보다는 공포에 질려  
밤에도 마음 놓고 편히 잘 수가 없었어.  
정말이다, 두 손 놓고 살 수가 없었다.  
내 실수 하나로 사람을 죽일까 봐  
실언 하나로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

—「겨울의 응답」\* 부분

의사의 분신이라 해도 좋을 “칼과 피와 살과 약”의 결정적 아이러니는 “사람을 살리려 애쓰다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이 비극적 사태는, ‘약’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이 ‘독’을 뜻하는 데서도 보듯이, ‘운명의 장난’ 따위와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뜨거운 생명충동이나 약자에의 연민이 불러온 뜻밖의 “실수”로 해석하는 것이 이성적 판단에 부합할 성싶다. 물론 정성 끝의 실수라는 식으로 타자의 죽음을 합리화하거나 의사 자신의 모자람에 구색을 덧칠한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무려나 「겨울의 응답」은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의술을 펼쳤던 시인이 의료상의 살림과 죽임의 아이러니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눈물겹게 보여주는 시편이다. 구절구절이 의사의 ‘바라봄’을 앞세우기보다 환자의 ‘바라봄’에 ‘지혜’와 ‘용기’, ‘믿음’과 ‘온유’를 붙여넣는 감응의 언어로 울울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언 하나로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는 의사 마종기의 윤리를 넘어 시인 마종기의 그것이 아닐 수 없다. 약자를 절망케 하는 ‘실언’의 공포에 떨며 그들의 변두리화에 “두 손 놓고” 살지 않는 태도. 이곳에야말로 더욱 모험적인 시인으로서 “광대=에이런”이 오만한 권력자의 값싼 희희덕거림을 얻는 대신 변두리 인생의 진솔하고 신명난 웃음을 거리낌 없이 터뜨리는 비밀이 숨어 있다.



몸통은 단번에 없어지고 핏자국만 남아  
 그 가는 날개에 묻은 애잔함만 모아서  
 기념식도 목념도 조가도 생략하고  
 잠시 우리가 만났던 날만 생각하겠다.  
 마지막 입맞춤의 징표는 오래가겠지만  
 남의 믿음을 짓밟은 자의 붉은 눈동자,  
 가려운 피부의 반점이 나를 비웃는다.

—「모기의 날」\* 부분

이 시를 접하는 순간 누군가는 비평가가 그랬듯이 인터넷을 열어 ‘세계 모기의 날’(8월 20일)을 검색해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놀라운 기념일은 십중팔구 인간들의 호된 손바닥에 비명횡사하는 모기의 수난을 다독이기 위한 날로 짐작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인즉슨 ‘모기의 날’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날이다. 왜냐하면 모기가 인간의 죽음을 재촉하는 말라리아를 필두로, 일본뇌염,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병인을 옮기는 치명적 통로임을 발견한 과학과 의학의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념일은 우선은 모기가 전파하는 절망적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승리를 축하하는 생명의 날이다. 다음으로 인간들의 말쑥한 보건과 위생을 지키려면 모기 퇴치에 더욱 집중해야함을 강력히 계몽하는 “모기 박멸”에 대한 선동일(?)이다.

꼭 과학의 승리로 가치화된 기념일이 없어도 모기들, 특히 “임신한 몸으로 / 피를 빨아 뱃속의 씨”를 살려야겠다고 달려드는 “암컷 모기의 모성”은 우리의 손바닥이니 파리체에 짓이겨져 “몸통은 단번에 없어지고 핏자국만 남”는, 기이하게 쾌미한 살육(?)의 대상일 따름이다. 하지만 만약 “모기 박멸”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모기의 날」은 이른바 권력자의 ‘바라봄’, 다시 말해 식민자의 거칠 것 없는 폭력과 건강 사회 구현이라는 인간 중심의 정당성에만 희희낙락하는 멧쩍은 작품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이 때문이라도 “광대=에이런”의 시적 자아는 양보할 수 없는 장치이자 미덕으로 단숨에 떠오른다. 하나가 “세상만사”는 “평화롭지도 공평하지 않”(「모기의 날」\*)다는 것, 하지만 모기는 그것을 죽어서야 깨닫는다. 이것을 인간사의 보편적 진리로 새로 기입하고 가치화하는 작업, 즉 “죽기를 각오하고 음악을 듣는 숙연한 자세”로 반어화하는 것이 “광대=에이런”의 몫이다.

그러나 진정한 반어의 완성은 모기의 남의 피 빨아먹는 ‘용기’를 미적 충동으로 ‘예술’화할 줄 아는 ‘지혜’를 넘어, “새끼를 살리려 몸을 던진 모성의 기일”로 새로이 가치화할 줄 아는 못 생명 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구축될 때 비로소 종결된다. 모기 박멸을 둘러싼 인간사에 대한 유머와 기지 넘치는 웃음의 언어가 그토록 작디작은 모기를 빌린 삶의 영원성과 그 전제로서 추호도 미련 없는 죽음 충동의 애잔한 페이스스로 문득 전환되는 지점이다. 여기서도 주체의 ‘바라봄’이 타자의 ‘바라보임’에 의해 반성되는 세속발(發) 온전함과 불완전함의 역전과 의미 바꾸기가 뚜렷하다.

발도 씻고 발톱도 잘라준다는 스파에 가니  
 물도 더럽고 염증까지 흔해서 더는 못 가겠다.  
 그냥, 목욕탕에 앉아 지나간 세월도 씻고  
 탕 속에 퍼질러 앉아 몸까지 푹 익히고 싶다.  
 부서져가는 몸이니 허드레 찌꺼기도 많고  
 씻고 벗기고 밀어내야 할 것도 많아졌겠지.  
 끝판이 가까워오니 오래 발 씻고 싶다.  
 더는 못 참겠다고 욱시나  
 두 발만 먼저 귀국하겠다고  
 성화를 부리면 어찌나.  
 발 자주 씻는 사람이 부럽다.

미국의 모사품 ‘스파’에 비교할 때 한국 본토의 목욕탕은 “탕 속에 퍼질러 앉아” “지나간 세월”을 닦아내며 “몸까지 푹 익”힐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건강 유지에 필요한 위생과 청결에 각별하다는 점에서 더욱 유익한 휴게 장치이다. 시인의 휴게는 그러나 오염된 공간, 더욱 직설적으로 말해 폭력적 현실 속에서 “부서져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회피 행위와 대체로 거리가 멀다. 그것은 차라리 겹겹이 쌓여가는 신체와 정신의 헛된 주름살, 곧 “허드레 찌꺼기”를 “씻고 벗기고 밀어내”기 위한 적극적 성찰 행위이다. 가장 온 몸의 무게와 피로를 감당하느라 가장 팍팍하고 가장 더러울 수밖에 없는, 지독한 악취의 발을 씻는 마지막 행위는 그러므로 내일의 모험을 더욱 견결하게 밀어가기 위한 뜨거운 신체와 정신에의 단련 행위이다.

먼저 귀국하여 결핍된 과거와 분열된 현재를 씻고 벗기고 밀어내고 싶다는 두 발의 소망은 이 때문이라도 혈친적 에스닉에의 귀소를 넘어 하이데거가 말한 ‘본원적 미래’로부터의 귀향, 아니 도래로 해석되어 마땅하다. 시간을 거스르는 ‘귀향’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행자는 미래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도래하는 것이다”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를 붙여두어 괜찮겠다.

길어지는 족보를 구구절절 읽다가 문득 뿌리라는 게 이제 와 무슨 소용일까 하는 의구심. 누구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자랑이 될까. 그래, 시간 있고 기회가 오면 백두산에나 한번 가 보렴. 거기서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게 바로 조상의 넋이다. 아니 가 보지 않아도 좋다. 어차피 세상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네 착한 심성이 제일이다. 최선을 다해 살다 때때로 너무 힘들어 어지럼증이 오면 그 어질한 느낌이 백두산이 주는 선물이란 것을 알게 되기를, 그 신호가 네게 늘 큰 힘이 되기를.

—「백두산 어지럼증」\* 부분

시인의 백두산 등정은 매년 일시 귀국할 때마다 치르는 신체적 제의(祭儀)에 방불한 “발 자주 씻는 사람”이 된 뒤의 행보임에 틀림없다. “백두산 어지럼증”은 생물학적으로 공기 희박해지는 고산 지대의 상황과 천지를 향해 오르는 신체의 소진에 의해 발생하는 결핍의 현상이다. 하지만 ‘조선심(朝鮮心)’이 발원한 민족의 성소로, 나아가 더욱 모험하는 모험가의 탐색 지대로 ‘백두산’을 상정한다면 그 ‘어지럼증’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 요컨대 반복하여 도래하지 않는 ‘일회적 사건’으로서 본원적 아우라에의 휩싸임 또는 신성한 것과의 순간적 통합을 뜻하는 성현(聖顯)의 경험인 것이다.

블란서의 바타이유는 성현과 통과제의, 에로스(섹스)를 ‘에로티즘’의 기본 형태로 제시하면서, 이것들의 언어화 및 정서화에 깊이 참여하는 시도 동일한 형식의 실천, 다시 말해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에 포함시켰다. ‘백두산 어지럼증’은 이산자로서 시인의 최선의 노력과 최대치의 삶에 주어진 신성한 자연과 충만한 시간의 사랑, 곧 에로티즘이라 할 만하다. 백두산 등정은, 또 그 미학적 결과물로서 「백두산 어지럼증」은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말처럼 “불완전으로서의 불완전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의 흔적을 찾도록” 하는 신적인 동시에 시적인 계시의 생산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신체적 현상을 초월하는 ‘시적 순간’의 다른 형식이다. 나아가 백두산 등정 길 내내 시인의 영혼과 육체를 휘감던 온갖 현존과 부재, 텅 빈과 팍 참, 침묵과 아우성이 뒤섞여 가한 심리적 충격과 의식적 압전이 생산한 미적 정서이다.

이를 감안하며 예외적 경험으로서의 ‘어지럼증’의 실재이자 환영을 「재두루미 한 쌍」\*에서 찾아봐도 좋을 싶다. 이 시편에서 그 사이 좋은 자연물, 아니 영물(靈物)들은 “영롱한 시의 빛보다 더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포즈”의 소유자이자 구현자로 성화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동의되는 명제 가운데 하나로 “예술은 분신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뒤바꿔 예술은 ‘예외적 분신’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소진된 자아와 세계를 재도약, 재충만시킨다고 말하고 싶다.

“광대=에이런”으로서의 시인 마중기에게 그 예외적 존재 “재두루미 한 쌍”은 단지 황홀하고 아

름다운 춤을 추어 보여주는 소극적인 존재거나 가상의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다. 유려한 율동과 고혹한 춤선, 하늘과 땅을 동시에 파고드는 날갯짓으로 세상을 둥글게 파문(波紋)하고 감싸 안는 “재두루미”의 이미지는 시인 자신이 꿈꿔온 더욱 ‘모험하는 언어’의 완미한 형태일 성실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로부터 도래하면서도 “젊은 시절 내가 즐긴 승무의 귀한 모습이나 휘휘 돌아가는 살풀이춤이나 티 없는 학춤까지 연상”시키는 과거로부터의 귀환자일 수가 없다.

분명 내가 처음 본 재두루미의 짝짓기였는데 어째서 나는 흥분하지도 않고, 침 흘리지도, 재미있어하지도 않고 차분한 기분으로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기만 했을까. 날짐승이어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아니면 내가 혼자 걸어갔던 평 터진 풀밭이 조용하고 호젓해서? 아, 아무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가 드디어 부끄러움 타지 않는 시인이 되려고? 영롱한 시보다 더 고풍스런 포즈가 세상이 밝으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구나. 짝짓기를 보며 승무의 귀한 모습이나 휘휘 돌아가는 살풀이춤이나 티 없는 학춤까지 연상되어 볼 수 있다면 나도 이제는 확실히 시인이 되고 있다고 믿어도 될까.

—「재두루미 한 쌍」\* 부분

이곳의 “재두루미 한 쌍”은 마중기의 시인됨을 구성하고 성숙시킨 모든 것이라고 해야 될 지도 모른다. 생각나는 대로 짚어보면, 시인을 세상에 내인 동화작가인 부친 마해송과 현대무용가인 어머니 박외선, 바라봄과 바라보임의 선후 및 권력 관계를 끊임없이 수정 또는 역전시켜간 과학자로서의 의사와 언어 연금술사로서의 시인, 정주와 이산의 정체성과 모순을 복합적으로 관찰하여 어떤 일자(一者)로 머물지 않고 복수의 다자(多者)로 흩어지게 한 모어 한국어(생래적 영토)와 이국어 영어(획득된 영토)의 내면적 대립과 통합 등의 다기한 이항대립물들이 “재두루미 한 쌍”들이다. 그러니 이것들 모두를 시인의 육체와 영혼으로,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근력으로 전환시키고 활성화시킨 자유롭고 지혜로운 ‘광대’와 ‘에이런’이 “재두루미 한 쌍”의 또 다른 형상이라고 해석해 두어 그 무엇이 문제시 될까.

시인은 연전 한국 후배시인과의 ‘신설동 밤길’을 이렇게 삶의 한 페이지에 적어 두었다. 자신의 “병든 나그네의 발”, 그러니까 “거칠고 메마른 발바닥의 상처는 / 말수가 줄어든 자책의 껌질들” 같았다고. 하지만 그들도 폐색된 서정과 마구잡이 이미지가 횡행하는 부패한 시의 영토를 거부하고 탈출하는 미학적 디아스포라, 바꿔 말해 더욱 모험하는 시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연대의식을 확인하는 순간 그 어둠던 ‘신설동 밤길’은 이렇게 빛나기 시작했다고. “편안한 말과 얼굴이 섞여 하나가 되는 / 저 불빛”을 책상 등불 삼아, “젖어버린 나이”와 “오랜 기다림”을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언어와 정서 속에 던져 넣으며 “그래도 꺾이지 않았던 날들”을 “꽃이나 열매로 이름을 새기”(「신설동 밤길」)는 현장으로 말이다.

그러니 이렇게 글을 맺어보면 어떨까. 한시도 쉽 없이 스스로를 낮춰 더욱 깊어저온 “광대=에이런”의 더욱 모험하는 의식, 바꿔 말해 “가진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 미련의 극치”(「신설동 밤길」)가 있어, 차갑게 식어가던 “파타고니아의 양”(「파타고니아의 양」)의 영혼과 육체는 “이제는 확실히 시인이” 된 모습의 “재두루미 한 쌍”(「재두루미 한 쌍」\*)으로 모든 시공간들마다의 ‘지금 여기’로 곳곳하게 생환하는 중이라고. 여기에 마중기 시의 핵심적 요체와 흐름을 ‘귀향으로서의 실향’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진정한 까닭이 숨어 있다.■

# 일본사회에서의 한국 육식문화

일본 고난대학

교수 김태호

인하대학교 2023.3.7.

## 들어가며

### @문제제기

일본사회에서 외식업계의 야키니쿠야 (焼肉屋 : 불고기집) 의 불고기는 「한국요리」라는 인식  
→ 한국의 육식문화가 일본사회에 정착

### @선행연구

·崔吉城/柳尚熙(1980)는 불고기가 한국 요리라는 전제 하에 일본사회에서의 재일교포 육식문화를 연구

·宮塚利雄(2005)도 불고기가 한국 요리라는 전제 하에 일본사회 불고기의 기원에 대해 분석

·佐々木道雄(2012)는 한국과 일본의 불고기는 틀린다고 하며 한일 간의 단절성 강조하고, 재일교포가 시작했기 때문에 불고기는 일본요리

## @본 발표의 관점

- 고기를 구워서 요리를 하는 불고기는 수렵시대 때부터 존재
- 일본사회의 불고기가 한국 요리 또는 일본요리라는 이분법은 의미가 없음
- 불고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불고기가 어떤 요리인지 명확하지 않음.

← 본 발표에서는 불고기가 어떤 요리인지를 명확히하고, 불고기 요리를 하는 장소, 일본 외식업에서의 육부위명(肉部位名)과 메뉴, 한일사회의 육식환경의 역사, 일본 국어사전의 육식 외래어, 불고기와 재일교포의 역할, 한일 교류와 불고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

## 1. 불고기의 조리법과 한국사회의 불고기

### 1-1. 불고기의 정의

@정의: 고기를 직화(直火), 또는 간접화(間接火)로 가열하는 조리법인데 불고기는 열을 가하는 다양한 고기 조리법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음. 예를 들면 굽고, 그을고, 볶고, 튀기고, 삶고, 졸이고, 찌는 등 고기의 조리법이 다양함.

### @ 불고기라는 용어

· 일본의 불고기인 야키니쿠[燒肉]에서의 「燒」는 「소각(燒却)」(태워서 없애다)의 어휘에서 보는 것처럼 「태우다」는 뜻인데 고기를 태우면 먹을 수 없음.

· 한국사회에서 「불고기」의 「불」은「火」, 「고기」는「肉」, 그리고 「구이」는 굽다의 명사형으로 사전에는 「구운 것」으로 설명

· 중국에서는 「烤肉」[kaorou]이라고 하는데 「烤」[kao]는 「炙」의 뜻으로 굽다는 의미

\* 예를 들면, 「적쇠」·「석쇠」は「炙鐵網」=「굽는 철망」이며, 「인구회차:人口膾炙」는 「사람의 입에 생肉(회:膾)과 炙肉(구운 고기:炙)」라는 뜻으로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

→ 일본의 야키니쿠(焼肉)는 부정확한 명칭  
그러나 사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1-2. 한국의 불고기

① 직화 (直火) 구이



② 간접화 (間接火) 구이



\* 佐々木道雄는 한국에서는 ②를 불고기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①을 불고기라고 하기 때문에 한 일의 불고기는 틀린다고 주장.

## <직화 구이의 과정>

(表 1) 焼肉 (直火焼き) の調理から食するまでの過程

1	2	3	4	
食材の肉	A	直火で焼く	㉗	つけタレあり
			㉘	つけタレなし
	B		㉙	つけタレあり
			㉚	つけ塩あり

- \* 고기 → A양념 → 직화 구이 → ㉗양념장, ㉘ 양념장 없음  
B양념 안함 → 직화 구이 → ㉙양념장, ㉚소금
- \* 한국의 궁중요리「너비아니」  
고기 → A양념 → 직화 구이 → ㉘ 양념장 없음  
즉, 한국에서도 ㉘ 직화 구이가 있음. 그러나  
부엌에서 구워서 제공함.

## 1-3. 일본사회의 불고기 집

### <일본에서의 불고기 집의 고기 형태>

- ㉑ 불고기 집 (소고기)
- ㉒ 불고기 집 (소고기+돼지고기)
- ㉓ 불고기 집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 ㉑㉒㉓에서는 사이드 메뉴로서 해산물, 소세지, 야채를 제공.

\* 한국사회의 불고기 집에서는 등심, 안심 등의 정육(精肉)만 제공.

## 2. 일본사회의 도축장과 불고기집의 육부위명(肉部位名)

### 2-1.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이 제시하는 육부위명(肉部位名)

## 牛の部位図鑑

【監修】日本肉消費協会センター

●ゼブトン  
●ヒレ肉  
●ランプ  
●イナボ  
●トモサンカク

●レバー(肝臓)  
●ミノ(第一胃)  
●シウチャウ(小腸)  
●シマチャウ(大腸)

### 正肉編 Beef Regular Cuts

●ネック Neck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アヒレ Shoulder Clod	肩肉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ランプ Lump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トシビ Chuck Tender	肩肉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ラムシ Lump Head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ブリスカ Ribeye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イナボ Inaba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カルビ(タネバラ) Short Rib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ヒレ肉 Tenderloin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サイジスカード Inside Skirt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とちも Buttloin Round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フック Flank Rib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ダムシ Top (Shoulder) Round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カインヒ Bottom Rib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ゼブトン Chuck Flap Tail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三角バラ Chuck Rib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とちも Top Round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ダツカヒ(神楽割) Kani Kagiri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トモサンカク Top Eye	牛首の肉。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ハトチマキ Shank	肋骨の肉質が柔らかく、肉質がよい。ステーキやハンバーグ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 内臓編 Beef Offal

●タン(舌) Tongue	牛の舌。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ハツ(心臓) Heart	牛の心臓。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赤ネギ(はら肉) Chick	牛の赤ネギ。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ハラヒ(横隔膜) Diaphragm Skirt	牛の横隔膜。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レバー(肝臓) Liver	牛の肝臓。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ハナノス(第二胃) Honeycomb Tripe	牛の第二胃。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サボリ(横隔膜) Hanging Tender	牛の横隔膜。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シママイ(第三胃) Book Tripe	牛の第三胃。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マメ(腎臓) Kidney	牛の腎臓。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キマラ(第四胃) Abomasum	牛の第四胃。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ミノ(第一胃) Mouth Chain Tripe	牛の第一胃。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シウチャウ(小腸) Small Intestine	牛の小腸。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シマチャウ(第一胃) Mouth Chain Tripe	牛の第一胃。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シマチャウ(大腸) Large Intestine	牛の大腸。肉質は硬く、繊維が粗い。主にスープやカレー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る。

農林水産省Webマガジン『aff』(September、農林水産省、2020年)

**<참고>**

- ・정육(正肉): 도축한 고기를 크게, 또는 작게 분할하여 뼈와 지방등을 제거한 고기.
- ・정육(精肉):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하여 형태를 갖춘 고기.

「소의 부위 도감牛の部位図鑑」  
 \* 좌측의 ①~②0은 정육(正肉)  
 \* 우측의 ①~⑭는 내장(内蔵)  
 → 대부분은 서양 유래의 명칭

12



## 2-2. 한국 유래의 육부위명(肉部位名)

### @일본 불고기 집 메뉴에 보이는 한국 유래의 명칭

(表2) 日本社会の焼肉屋のメニューにみる韓国ゆかりの肉の部位名

番号	焼肉屋の名称	韓国語の名称	部位	備考	参考
①	ウルテ	울대	牛の気管		
②	カルビ	갈비	牛のリブ (Rib)	牛の部位図鑑 (正肉①カルビ)	第一版・第4版に掲載
③	コプチャン =コテッチャン	곱창	牛の小腸		
④	センマイ	천엽 (千葉)	牛の第三胃	牛の部位図鑑 (内蔵④第3胃)	
⑤	テッチャン =ホルモン	대창 (大腸) : 대장	牛の大腸		
⑥	ユッケ	육회 : 肉膾	牛尻の内向筋		第一版・第4版に掲載
⑦	サムギョプサル	삼겹살	豚の三枚肉		第7版に掲載
⑧	デジカルビ	돼지갈비	豚のリブ (Rib)		

\* 第一版 (1988年) は『大辞林』である。

\* 第4版 (1991年)、第7版 (2018年) は『広辞苑』である。

**\* 일본 불고기 집에서는 정육(正肉), 내장(内蔵), 돼지고기까지 제공.**

### @일본 불고기 집에서 보이는 한국 유래의 ①~⑤ 육부위명

①「울대」(ウルテ)는 구워 먹음.

②「갈비」(カルビ)는 『大辞林』(第一版、岩波書店)과 『広辞苑』(第4版、三省堂)에 외래어로서 게재됨

\*회전 초밥집의 맛있는 소갈비(旨だれ牛カルビ)와 맥도널드의 너무 맛있는 갈비 햄버그(こく旨かるびマック)

③「곱창」(コプチャン)은 고데창코테ッチャン이라고도 함. 「코」는 「小」의 의미.

④「천엽」(センマイ:千葉)은 날 것으로도 구워서도 먹음.

⑤「대창」(テッチャン)은 소의 대장(大腸)으로 다른 명칭으로 일본에서는「호르몬(ホルモン)」이라고 함.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함.

⑥「육회」(ユッケ:肉膾)는 『大辞林』(第1版)과 『広辞苑』(第4版)에 외래어로 게재됨.

\*오кина와(沖縄)지방의 염소육회(やぎユッケ)、회전 초밥집의 다랑어 육회(マグロユッケ)라는 품목이 있음.

⑦⑧은 돼지고기인데 특히 ⑦「삼겹살」은 『広辞苑』(第7版)에 외래어로 게재됨.

→(표2)한국 유래의 명칭은 일본 불고기가 한국과 관련된다는 단서를 제공.

### 2-3. 서양 유래의 육부위명(肉部位名)

@일본 불고기 집 메뉴에는 서양 유래의 명칭이 많음.

(表3) 日本社会の焼肉屋のメニューにみる西洋ゆかりの肉の部位名

番号	焼肉屋の名称	西洋の名称	部位	備考
I	タン	Tongue	舌	牛の部位図鑑 (内蔵①タン)
II	テール	Tail	尻尾	
III	ネック	Neck	首	牛の部位図鑑 (正肉①ネック)
IV	ハツ/ハート	Heart	心臓	牛の部位図鑑 (内蔵③ハツ)
V	ヒレ/ヘレ/フィレ	Filet	大腰筋	牛の部位図鑑 (正肉⑤ヒレ)
VI	ランプ	Rump	尻肉	牛の部位図鑑 (正肉②ランプ)
VII	レバー	Liver	肝臓	牛の部位図鑑 (内蔵③レバー)
VIII	ロース	Roast	ロースト	

\* I ~ VIII의 용어는 일본 국어사전에 외래어로 게재됨.

**@서양의 굽는 고기 요리**

· 고기를 구운 요리 「바베큐(Barbeque)」: 불고기 집과 같이 실내에서 즐기는 요리가 아니라 야외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식재를 굽는 요리

→ 실외에서 조리

· 두툽한 고기를 구운 「스테이크(Steak)」: 직화가 아니라 철판 위에 간접화로 구운 요리로 주방에서 구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는데 한국의 「너비아니」와 비슷한 요리

→ 주방에서 조리

\* 서양의 굽는 고기 요리는 실내에서 먹는 사람이 조리를 하는 것과 틀림.

· 도축장과 불고기집에서는 한국 및 서양 유래의 육부위명(肉部位名)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명칭도 있음.

예: 아카센(アカセン), 고우네(コウネ), 스킨(スジ), 세세리(セセリ), 쓰라미(ツラミ), 돈토로(トントロ), 하치노스(ハチノス), 바라(バラ), 하라미(ハラミ), 미스지(ミスジ), 미노(ミノ)

→ 소고기의 육부위명에는 한국, 서양, 일본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본의 불고기와 바베큐는 굽는다는 조리법은 같지만 불고기가 서양요리가 아닌 것은 명백함.

\* 이상의 명칭과 조리법만으로는 일본의 불고기가 일본요리라고 단정을 못함.

### 3. 한일 사회의 육식 환경

#### 3-1. 전근대 일본사회의 육식 문화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긴메이欽明13(552)년에 백제의 성왕聖王(성명왕聖明王)이 금동 석가불과 경론經論을 헌상했다는 기록되어 있음.

·텐무天武4(675)년에는 「牛、馬、犬、猿、鶏の肉を食ふこと莫れ(中略)若し犯す者有らば罰せむ」라고 하는 살생금단령殺生禁断例을 내림.

·루이스 프로이스(1532~1597)가 쓴 『유럽문화와 일본문화ヨーロッパ文化と日本文化』에는 「日本人は野犬や鶴・大猿・猫・生の海藻などをよろこぶ」、그리고 「彼ら(日本人)は牛を食はず、家庭薬として見事に犬を食べる」라고 기록되어 있음.

·에도江戸 시대에는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가 일본에 오면 「朝鮮人好物之覚」には「牛、猪、鹿、家猪」을 대접했다고 「朝鮮人好物之覚」에 기록함.

·메이지明治5(1872)년이 되면 갑자기 육식에 대한 문호를 개방함.즉 「我朝ニテハ中古以来肉食ヲ禁セラレシニ恐多クモ天皇無謂儀ニ思召レ自今肉食ヲ遊バサレレ旨宮内ニテ御定メ之アリタリ云」라고 선언함.

→일본사회는 살생금단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육식의 역사가 짧고 육식 문화가 발달되지 않음.

### 3-2. 전근대 한국 사회의 육식 문화

#### <불교 영향 하의 육식문화>

· 고구려는 小獸林王2(372)년에 전진前秦의 왕인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順道를 파견하고 불상과 경전을 전했다고 함.

· 백제는 침류왕枕流王元(384)년에 동진東晉의 승려인 마라난타摩羅難蛇가 불교를 전했다고 함.

· 신라는 눌지왕訥祗王(417~458)때에 고구려에서 승려인 묵호자墨胡子가 불교를 전했으나 공인되지 않고 법흥왕法興王14(527)년 이차돈異次頓이 순교를 한 뒤 공인함.

· 인종仁宗元(1123)년 송宋으로부터 온 사신 서경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夷の政治はとても慈しみ深い。仏教を好み、殺生を戒める。したがって国王、大臣でなければ羊や豚を食しない。屠殺もよくしない」라고 기록함.

→ 불교전래 이후 육식을 금기시하는 풍조

→ 고려 사회또한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을 즐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

\* 국왕, 대신, 그리고 사신에게는 육식을 준비

@ 도축법도 발달되지 않음(『고려도경高麗圖經』).

「四本の足を縛って烈火の中に投げる。その命が絶えるのを待って毛を落とし、水で洗う。もし生き返れば杖で打ち殺す。そうしてから腹、胃腸を裂く。糞や穢れがすっかり無くなるまで水を注いで流す。糞や焼肉にしてもその悪臭は絶えない。その拙いことこのようである」

### <몽고 지배와 육식 문화>

- 고종46(1259)년에 몽고와 강화를 맺고 몽고의 지배 하에 들어감.
- 충렬왕(1236~1308)은 몽고의 세조 후빌라이의 딸인 제국대장공주(후에는 원성공주로 칭함)과 혼인을 함. 제국대장공주는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육식을 했음.
- 조선시대는 송유역불 정책 하에서 육식을 금하지 않음.
- 육고기의 상품화와 유통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주로 관혼상제 및 기념일에 도축을 함.농경사회에서 소는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도축을 해서 식용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 일본사회에는 육식의 역사가 짧아 육식문화의 성립이 늦었고, 이에 따라 한국 및 서양 유래의 고기 부위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음. 또한 육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육식과 관련된 일을 하기 쉬운 환경이었음.

## 4. 일본사회의 육식 문화와 재일 교포

### 4-1. 재일 교포와 불고기

#### <사회적 상황>

- 1876년에 강화도조약(丙子修好條約)이 맺어짐.
  -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한국인이 일본에 이동.
- 그러나 1920년대 중반까지는 유학생,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단신 노동자가 주류.

· 1925년대 중반 이후는 가족단위로 도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

· 도일한 사람들은 「조선인부락朝鮮人部落」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음.

→ 하천부지, 늪지대, 상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며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 일본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일본인들이 사는 「피차별부락被差別部落」에 같이 살거나 부근에 유입해서 정착함.

#### <재일교포와 육식문화>

· 『西成区在日コリアン人権意識調査報告書』에는 재일교포가 「人間関係が快適であり、隣の日本人にホルモン焼きやキムチをわける」라고 한 것을 기록.

\* 한국의 육식문화를 보급했다기보다는 조선인부락과 일부의 일본 피차별부락이 한국의 육식문화를 공유함. 외식업인 한국식당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시기는 육식 문화가 일본사회에 진출하기 전의 잠재기潜在期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사회에서의 내장 요리>

· 해방 후 가나가와현神奈川県 가와사키川崎 시멘트 거리에서 재일 교포가 호르몬:대창(ホルモン) 구매하는 일단을 볼수 있음.

ホルモンは芝浦の屠畜場から仲買人のような人が買ってきて、自転車の荷台に積んだ1斗缶や竹ざるに氷を入れてここまで運び、それを戸板のようなものの上に並べて売っていましたね。(中略)仲買人がと場から買ってきた内臓を近所の在日が自分の家で食べる分だけ買ってきて、モツ煮や焼いてオモニの秘伝のタレで食べました。

·1946년 일본 관동지역關東地域에서 불고기 집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명월관明月館」에서는 종업원의 식사로 호르몬을 제공함.

→호르몬이 값싼 식재임을 알 수 있음.

<호르몬(ホルモン)에 대한 2가지 설說>

①호르몬은 동물 체내의 조직과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생리적 물질의 총칭으로 영양이 풍부한 내장을 먹으면 활력이 넘친다는 설.

②오사카大阪 방언으로 대창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호루모노「ほるもの」(放るもの)가 호르몬이 되었다는 설.

②의 오사카大阪 방언으로 대창은 「버린다는 것」의 설이 유력하다고 간주함.

→재일 교포는 일본인이 먹지 않는 소의 내장을 주워서 먹거나 팔았음.내장요리는 처음부터 재일교포가 외식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요리에서 먹는 요리를 가지고 외식업인 불고기 집을 개점함.

→해방후 불고기가 외식업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재일 교포가 외식업인 불고기집을 경영함.

→ 해방후 일본사회의 불고기는 맹아기萌芽期라고 할 수 있음.

\* 崔吉城·柳尚熙는 재일교포가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 수단으로 천직賤職인 불고기집을 경영했다고 함.



### <재일 교포의 불고기 집>

- 화재의 위험이 동반되는 고기를 굽는 화로를 실내에 들여옴.
- 고기를 굽는 연기가 실내에 충만하는것을 각오.
- 구운 고기 냄새가 부착하는 것을 각오.

### <일본 불고기의 응원 세력>

- 1981년 산포(주)シンプ(株)가 무연 로스타(Roaster)를 개발함.
- 1968년 에바라エバラ 식품공업회사가 「에바라 불고기 양념(조선풍)エバラ焼肉のたれ(朝鮮風)」을 개발함.
- 1960년대는 일본사회에서 불고기의 발전기發展期라고 할 수 있음.

### 4-2. 한일 관계와 불고기

- 1984년 일본NHK에서 「한글 강좌」를 시작.
- 같은 해에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
- 1986년 한국 아시안 게임 개최
-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 방한한 일본인은 한국식韓国食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귀국해서는 불고기 응원 세력이 됨.
- 1992년10월 일본에서 「전국 야키니쿠협회全国焼肉協会」가 발족됨.
- 1993년에는 8월 29일을 「야키니쿠의 날焼肉の日」로 정함.즉,「야키(8)니(2)쿠(9)」라는 일본식 의미

→이후 재일 교포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외식업의 불고기 업계에 진출함.

→글로벌 시대 (1990년대) 부터 일본 사회의 불고기는 정착기定着期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음.

**<일본사회에서 불고기가 거친 과정 (표4)>**

(表4) 日韓関係と日本社会の焼肉料理の辿った過程

時期	丙子修好条約 (1876年) ~ 終戦	終戦 (1945年) ~ 日韓国交正常化	日韓国交正常化 (1965年) ~ ソウルオリンピック (1988年)	グローバル時代到来以降 (1990年) ~
焼肉をめぐる出来事	・ 外食業の焼肉屋はほぼなし ・ コリア半島からの人々の家庭、朝鮮部落、一部の地域だけで食用	・ 在日コリアンの闇市でのホルモン料理 ・ 焼肉の室内料理化	・ 食品会社の家庭用タレ開発 (1968) ・ 無煙ロースターの製造 (1981) ・ 1980年代の良好な日韓関係	・ 国語辞書に焼肉定番の品目を掲載 ・ 焼肉の日 (8/29) を制定 (1992)
変貌状況	潜在期	萌芽期	発展期	定着期

**\* 불고기집의 메뉴에 한국 유래의 육부위명, 그리고 해방후 재일 교포가 호르몬(ホルモン)구이로 부터 시작하여 불고기집을 경영한 것은 불고기를 한국요리하고 간주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요리라고 단언할 수 없음.**

**4-3. 일본의 불고기 집과 한국요리**

(表5) 焼肉屋のメニューにみる韓国料理の野菜類と食事類

	国語辞典に掲載されている品目		国語事典に掲載されていない品目
野菜類	김치 (キムチ) 나물 (ナムル) 상추 (サンチュ)	第2版・第一版 第3版・第一版 第7版・第三版	白菜キムチ、깍두기 (カクテギ)、キュウリキムチ  저레기 사라다 (チョレギサラダ)
食事類	비빔밥 (ビビンバ) 냉면 (れいめん: 冷麵) 국밥 (クッパ) 찌개 (チゲ) 순두부 (スントップ: 純豆腐)	第3版・第一版 第4版・第一版 第5版・第一版 第6版・第二版 第7版	石焼ビビンバ  떡국 (トック) 김밥 (キムパ)

\* 第2版 (1969年)、第3版 (1983年)、第4版 (1991年)、第5版 (1998年)、第6版 (2008年)、第7版 (2018年) は『広辞苑』である。

\* 第一版 (1988年)、第二版 (1995年)、第三版 (2006年) は『大辞林』である。

\* (표5) 불고기집의 한국요리는 불고기가 한국요리라는 인식을 심어줌. 게다가 일본 국어사전에 (표 5)의 한국요리가 외래어로 게재됨에 따라 일본사회에서 불고기가 한국요리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나가며

@일본사회에서 불고기(야키니쿠:焼肉)가 한국요리라는 인식의 원인遠因

- 고대부터의 살생금단령殺生禁斷令으로 인한 육식 문화의 미발달
- 육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뛰어들기 쉬운 환경
- 발달된 육식 사회의 육고기 용어가 도입

@일본사회의 불고기 집에서 보이는 한국적 요소

- 불고기 집 메뉴에 한국 유래의 육부위명
- 해방 후부터 호르몬 요리를 중심으로 불고기를 제공

- 불고기 집은 재일교포의 경영자가 많음
- 불고기 집 메뉴에 한국 요리명

@일본사회에서 불고기가 한국요리로 인식되는 근원近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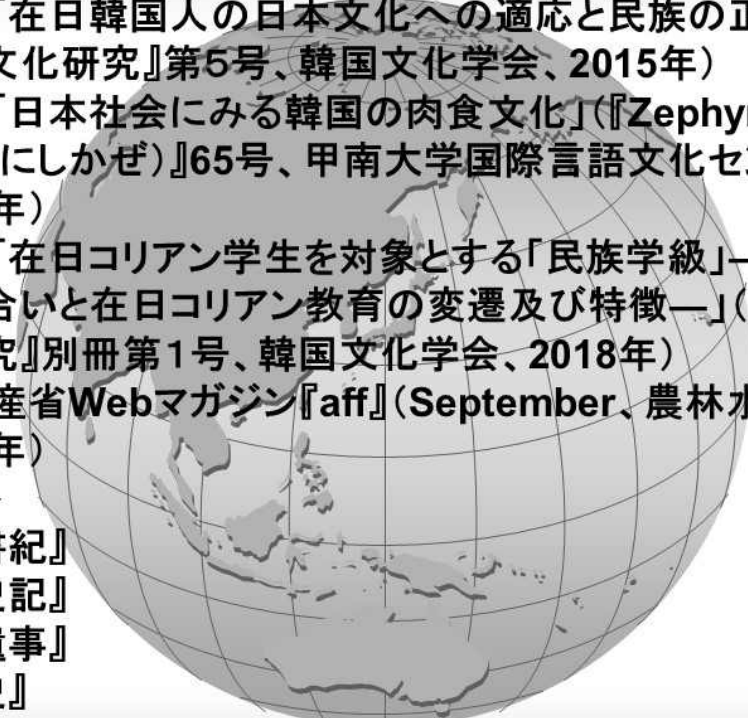
- 한국 유래의 육부위명을 외래어로 일본 국어사전에 게재
- 불고기 집에서 한국 요리를 제공
- 불고기 집의 한국 요리명을 외래어로 일본 국어사전에 게재

이상

<참고문헌:연대순>

- ・『新聞雑誌』(第26号、日新堂、1872年1月24日)
- ・末松保和「新羅仏教伝来伝説考」(『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平凡社、1954年)
- ・李弘植「日本에 傳授된 百濟文化」(『韓国思想』9、韓国思想研究会、1968年、韓国)
- ・植原路郎『食道入門』(自治日報社、1971年)
- ・鄭大声『朝鮮食物誌』(柴田書店、1979年)
- ・田村圓澄「百濟仏教伝来考」(『白初洪淳昶博士還曆記念 史学論叢』大丘史学会、1977年、韓国)
- ・崔吉城/柳尚熙「在日韓国人の焼肉に関する文化人類学的考察」(『社会人類学年報』Vol.6、東京都立大学社会人類学会、1980年)
- ・杉原薫/玉井金五編『大正大阪スラム—もう一つの日本近代史—』(新評論、1986年)
- ・정용숙『고려시대의 后妃』(民音社、1992年、韓国)
- ・『ヨーロッパ文化と日本文化』(岩波書店、1993年)

- ・徐兢著/朴尚得訳『高麗図経』(国書刊行会、1995年)
- ・小菅桂子『近代食文化年表』(雄山閣、1997年)
- ・鄭大声『朝鮮半島の食と酒』(中公新書、中央公論社、1998年)
- ・『西成区在日コリアン人権意識調査報告書』(ヒューマンライツ教育財団、1998年)
- ・四方田犬彦「食事にみる世界観」(『NHK人間講座 大好きな韓国』日本放送出版協会、2002年)
- ・西田芳正「在日韓国・朝鮮人と被差別部落の関係性をめぐって」(『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2巻、関西社会学会、2003年)
- ・宮塚利雄『日本焼肉物語』光文社、2005年)
- ・外村大『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緑陰書房、2007年)
- ・『記念日・祝日の事典』(東京堂出版、2008年)
- ・高正晴子『朝鮮通信使をもてなした料理』(明石書店、2010年)
- ・『畜産副生物の知識』(公益社団法人日本食肉協議会、2011年)
- ・佐々木道雄「焼肉は猪飼野からはじまった」(『ニッポン猪飼野ものがたり』批評社、2011年)

- 
- ・佐々木道雄『焼肉の文化史』(明石書店、2012年)
  - ・金泰虎「在日韓国人の日本文化への適応と民族の正体性」(『韓国文化研究』第5号、韓国文化学会、2015年)
  - ・金泰虎「日本社会にみる韓国の肉食文化」(『Zephyr(ゼフィール・にしかぜ)』65号、甲南大学国際言語文化センター、2016年)
  - ・金泰虎「在日コリアン学生を対象とする「民族学級」—民族の意味合いと在日コリアン教育の変遷及び特徴—」(『韓国文化研究』別冊第1号、韓国文化学会、2018年)
  - ・農林水産省Webマガジン『aff』(September、農林水産省、2020年)

<史料>

- ・『日本書紀』
- ・『三国史記』
- ・『三国遺事』
- ・『高麗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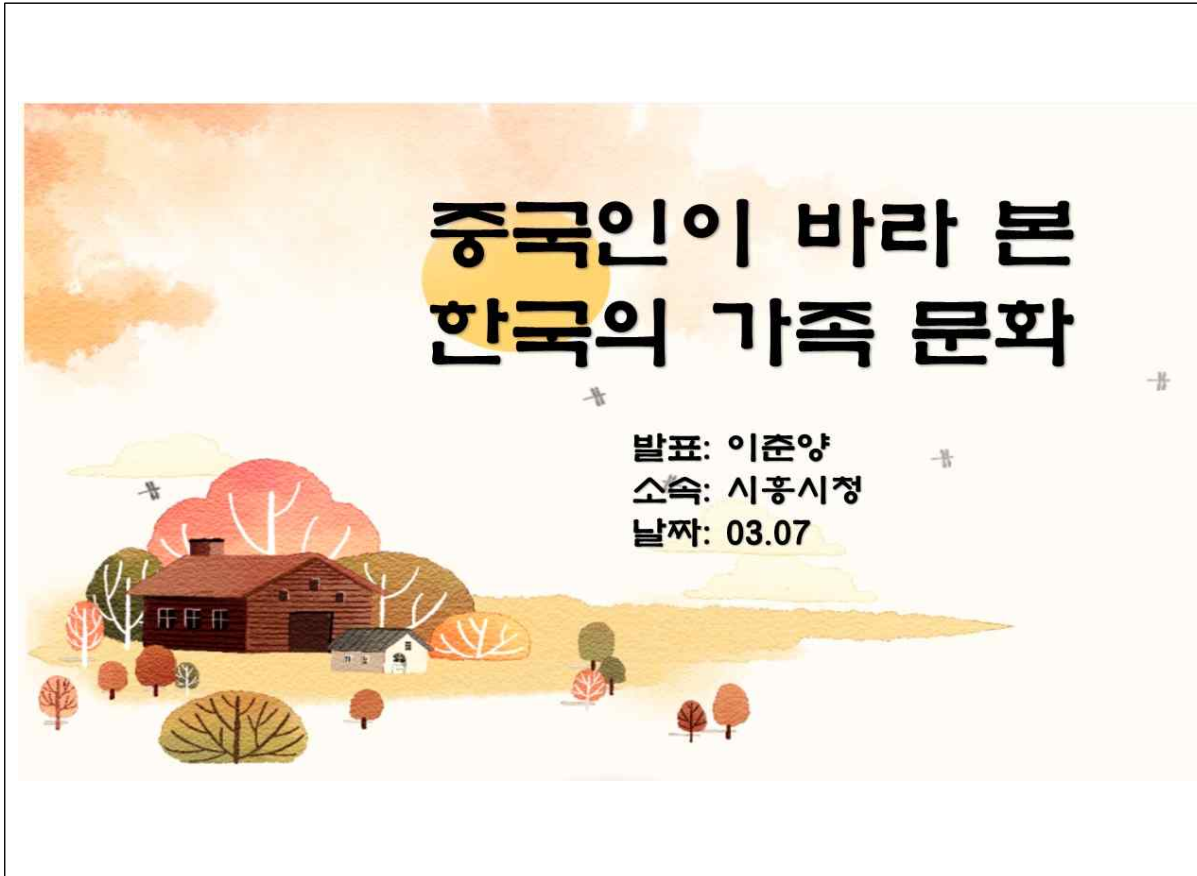
제4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사례  
발표

01  
우즈베키스탄계 이주민의 상호문화경험  
피루자 | 다문화융합연구소

02  
중국인이 바라 본 한국의 가족 문화  
이춘양 | 시흥시청

## 사례발표 1



### 가족 VS 가정 VS 가구



가족	가정	가구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집안식구, 집안의 사람 수효,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가족이란?

### 좁은 의미

- ☑ 혈연과 배타적 성관계, 출산과 입양, 경제적 협동과 공동 거주, 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 및 지속적 관계,  
외부 사회와의 경계가 확고함. 결혼한 부부와
- ☑ 그들 사이의 생물학적 자녀 및 입양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등 이성 간의 혼인과 혈연 및 입양 등의 의한 법적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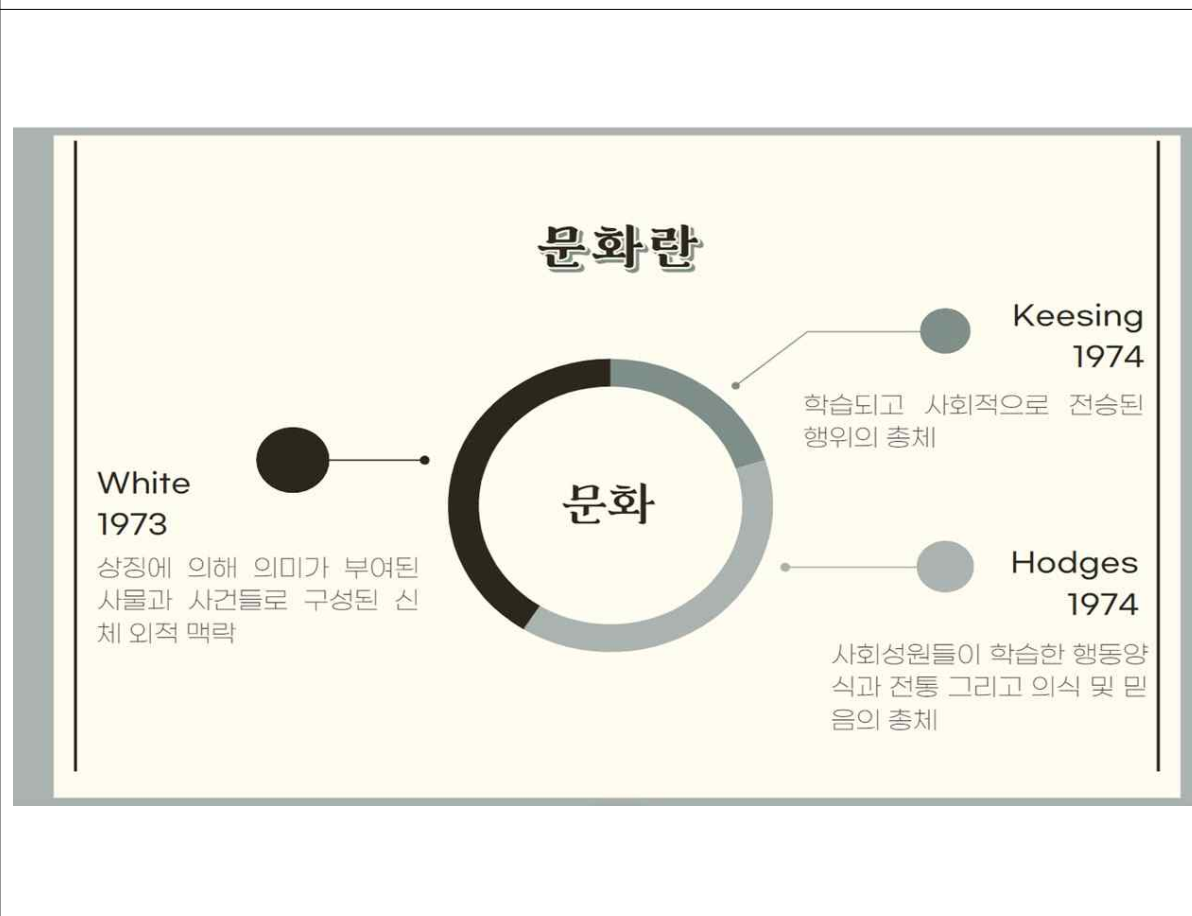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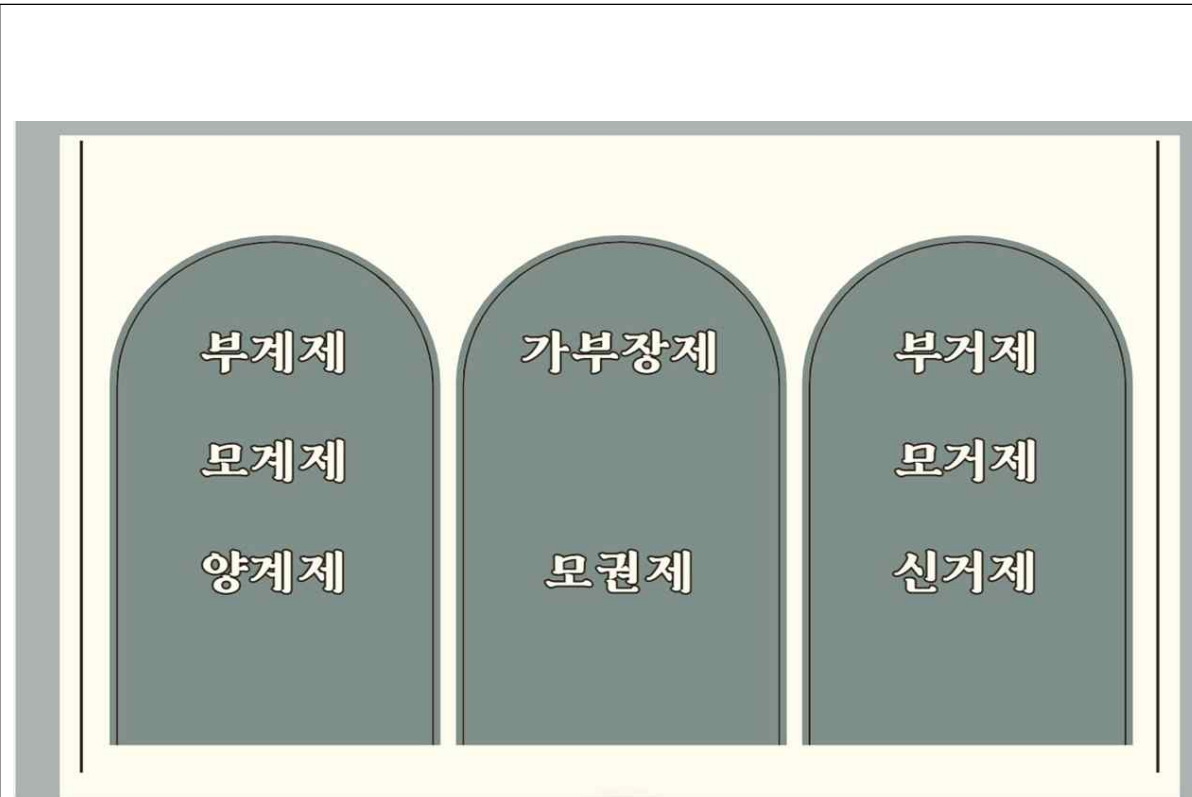
### 넓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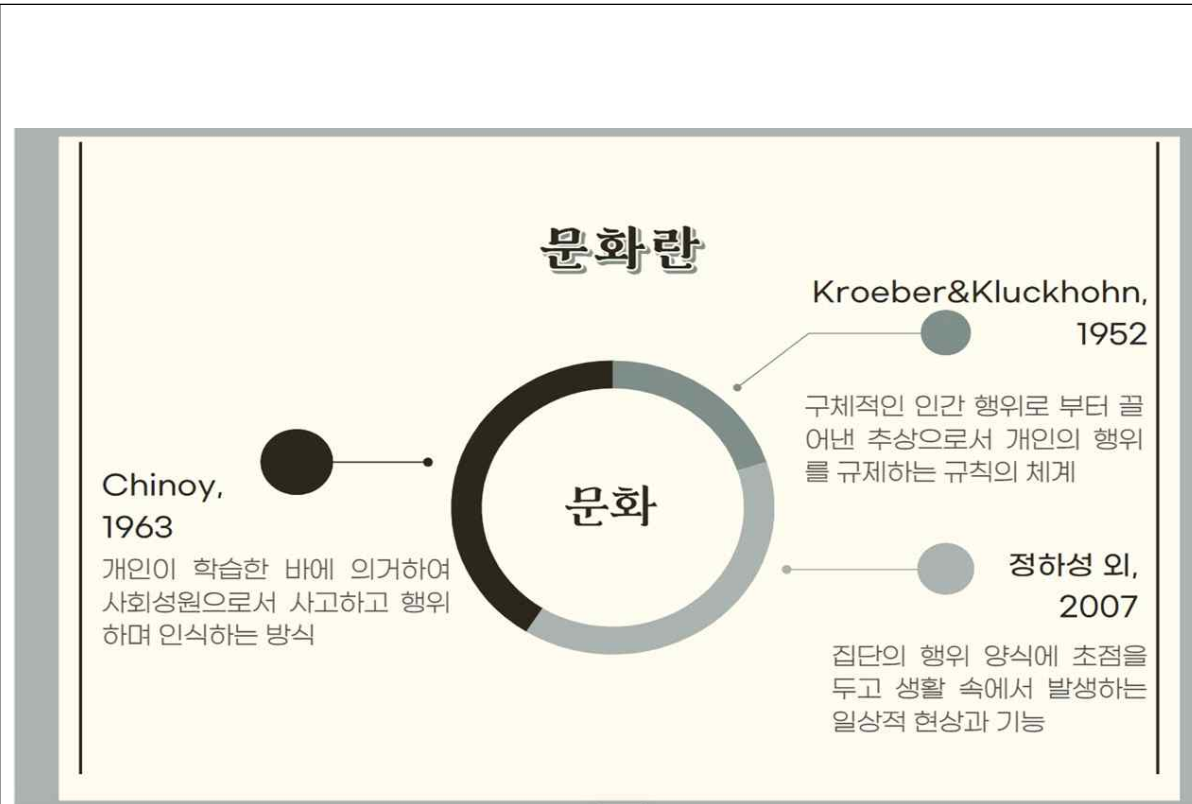
- ☑ 친밀감에 기초한 정서적 교류, 돌봄, 노동의 연대, 자원 공유, 공동생활, 그리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여봉, 2017

남윤인순, 2005







**중학교 문화의 이해**

# 사회 ①

(주) 금성출판사

**문화의 의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번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자.'라든가, '문화인으로서 질서를 지키자.'와 같은 말이 그 예이다. 이때 사용된 '문화'는 예술이나 교양, 그리고 세련된 것이나 발전된 상태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문화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공통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지식, 예술, 규범, 관습, 가치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인간의 타고난 체질이나 본능에 따른 행동, 개인의 독특한 습관 등은 문화라고 할 수 없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문화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크게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된다. **물질문화**는 음식이나 옷, 컴퓨터 등과 같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과 그것을 만들고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비물질문화**는 제도문화와 관념 문화로 나뉜다. **제도문화**는 법, 관습, 예절, 가족, 정치 등과 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에 비해 **관념 문화**는 철학, 예술, 종교, 언어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산물을 의미하며, 삶의 방향이나 정신적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 문화의 특성

첫째,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를 문화의 **공유성**이라 한다.

둘째, 문화는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문화의 **학습성**이라 한다.

셋째, 한 세대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다음 세대로 연이어 계승·전달되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화의 **축적성**이라 한다.

넷째, 문화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축적하면서 변화하기도 하며, 다른 문화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하기도 한다. 이를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한다.

다섯째, 문화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은 각기 별도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문화의 **총체성**이라고 한다.

김영순, 2021

문제를 풀는 시민을 위한 안내서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김영순 지음

문화체육관광부

## 가족 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및 신념과 규범,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의식주 및 노동과 여가와 의례와 소비 등 일상적 삶에서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당연시되고 수용되는 행동 양식



이여봉, 2022

##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방법 : 잡담 녹음  
연구 방법: 내러티브 (Narrative)  
자료 수집 일시 : 2월 20일  
연구 참여자 : 중국인 한족 4명

## 잡담은 중요한 대화다.

잡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누는 대화이며,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선영 · 이상원, 2019

- ❖ 간단하고 편안한 주제로 가볍게 나누는 대화
  - ❖ 부담 없이 나누는 일반적인 대화
  - ❖ 비공식적인(사적인)
  - ❖ 의사소통능력의 기본이 되는 대화
  - ❖ 사회성을 높이는 대화
  - ❖ 인간적이고 흥미진진한 대화
  - ❖ 말주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대화(경청)
1. 단순한 즐거움과 마음의 정화작용을 할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평판)을 심어 줄 수 있다.
  3.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다.
  4. 새로운 친구나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
  5. 자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
  6.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7.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

송기인, 2015

## 결과 요약 전사 내용 참고

### 참고문헌

- 이여봉(2022), 21세기 한국가족과 문화
- 김영순(2021), 시민을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
- 송가인(2015), 잡담(SMALL TALK)과 커뮤니케이션
- 남윤인순(200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첫 단추를 잘 끼우자

행복한 가족 되시길!

살기 위한 삶이 아닌  
삶을 위한 삶이 되시길!

